
제1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57년7월24일(단기4290년)

개회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간사장 신용석; 지금으로, 부터 제13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 의장님의 식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제13회임시회를 여는데에 임해서 간단히 한
두마디 개회식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벌써 100년20여일이 경과되었습니다. 해서
시의회가 시작된지……. 그래서 앞으로 남기는 42일밖에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로서 스스로 진행경과를 반성해보고
앞으로할일을 생각해 볼적에 일년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생각을 먼저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다시 임시회가 있을
지 없을는지요. 몰라서 이것을 인사말로 겸해서 말씀을 드
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도 자부심이 있고 시의원으로서 하고
싶

은 일이 많아서 그동안 2차정기회의 12회임시회를 거쳐서 여러가지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 개선할 또는 독려할 여러가지로 많은 일을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것입니다.

하나 다만 우리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힘껏 풍우를 불피하고 추우나 더우나 불구하고 밤낮을 일을해서 진격할 토의를 옳다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추후에 반성해보면 혹 어떨까 하는 점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자기에 이해관계로서 의회가 나쁘니 좋으니 말하는 사람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정당한 비판으로 의회를 평하는 사람에대해서도 역시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 기대하는일이 너무 커서 시의원이 일을적게 했다는것이 일반적 평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럴때마다 우리자신 조금도 내심에 괴로움이 없고 부끄러운 일이없기때문에 우리 힘껏 일했다고 하는것이 우리자신으로서 자부심을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부심을가지고 신념을가지고 대답할수 있고 대개 여기에 나와서 남은 기회에 언제든지 실시할줄 믿고있는 바이올시다.

그렇다면 앞으로 42일밖에 안남은 1년동안에 얼마만한 일을해서 우리자신이 진솔한 신념을 다할수 있느냐 그러면 오늘13회임시회가 이틀 동안이나 될는지 사흘동안이 될런지 그것은 의사진행에 의해서 작정될 일인데 특별히 주의를해 가지고 우리자신이 적은 날자에 큰 효과를 내서 시민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일이 없도록 하기를 요망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일하는데 대해서는 범사가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을 자각해서 고안해 나가는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를 계기로해서 더욱 과거를 반성하고 또

는 현실을 자각해 가지고 진실한 민주주의로서 일시적 감정으로 일시적 걱정으로 흥분하지 말고 화목한 마음으로 잘 진행하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십니다.

○부시장 신용우;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제13회임시회를 개회함에 제하여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회임시회를 마친지가 일자가 얄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거듭 회의를 갖게된데 대하여는 대단히수고가 많으실것으로 압니다.

금반회기에 있어서는 전번회기때에 상정예정이었던 4288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예산보고승인안을 비롯한 기타 중요안건이 상정된다고 하옵든바 현하 제반정세에 비추어서 어느안건이고 모든 조건과 애로가 있을줄로 참작되온바 이를 잘 이해 하시고 협조 하시와 이번 회기에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 하오나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만세삼창을 운영위원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삼창)

이상으로서 제12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5분동안 휴회해가지고 곧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